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전라남도

전남의 운명을 바꿀 출발점 낙달남은 F1 완벽준비를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전국 최하위(2010년), 지방채무 증가율 16개 시·도 가운데 4위(2009년 1조2262억원), 청년층 인구유출 최상위권’.

통계수치를 통해 드러난 전남의 실태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내건 ‘전남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슬로건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인구 감소세도 둔화했지만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 기반과 문화 환경마저 취약한 탓에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지사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승리의 환희를 맛보기도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현안 리스트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할 사항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 개최다. 대회 기간 중 관람객과 관계자들이 목을 숙소 문제를

비롯, 교통대책과 수도권 홍보 방안 등은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급선무다. 박람회 주요 도로 시설 확충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 관심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남해안 관광레저사업(J프로젝트)과 무안기업도시 조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박 지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 J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새만금 명품도시 개발방안’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자칫 조성이 늦어질수록 투자 유치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안공항 활성화도 광주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광주시와의 조율 문제를 비롯, 현재의 전세기 유치 수준에서 벗어난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

고,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 지사가 ‘2020년 전남도 인구 200만 회복’을 기치로 내건 만큼 ‘알짜’기업 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전남지역의 인구와 경제 성장과 관계분석(2008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청년층의 타지역 전출비율은 54.7%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이후 2432개의 기업을 유치해 8만4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게 전을 가져야 할 과제다. 취업현장에 나선 젊은층들엔 ‘똥구름 잡기’식 숫자놀음이라는 반응이 많다. 일자리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농·수·축산업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한 관료와 생산 기반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하고 우주항공클러스터와 천일염 세계화 등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월드컵 최종 점검 분주

지구촌의 축구축제인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둔 9일(한국시각) 개막전과 결승전이 열리는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대회 관계자들이 골포스트 네트를 고정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연합뉴스

광주시 조직 확 바꾼다

인수위, 감사관 등 개방형 공모 확대

민선 5기 광주시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직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광주시의 기존 실·국 조직 간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총괄 기능이 미흡하다는 잠정평가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실·국 산하 각 과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예상된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개정 및 시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그 시기는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취임 이후 올 12월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광주시의 조직이 경직돼 있는데다 업무분장도 실·국별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창조적인 사고와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편 폭과 정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당선자가 강조한 ‘창조의 중심도시’에 어울리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개방형 공모직도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사회복지국장·여성정책관·보건환경연구원장 등 3개 직위가 개방

형 공모직이었으나 광주시는 올 초 인사에서 사회복지국장과 여성정책관에 공무원을 발령시켜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장만이 개방형 공모직으로 남아있다.

최근 조직 관련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 인수위원이 공보관·감사관·여성정책관의 개방형 공모직 시행을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서 강 당선자는 “감사관의 경우 개방형 공모직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청 1~5급 직원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 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 설립 56주년 (1954~2010)
민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양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법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나로호 못샐다 소화장치 오작동 발사 연기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 2차 발사가 연기됐다. <관련기사 3-6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9일 오후 5시30분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기차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로호 발사대 소화장치의 오작동으로 소화용액이 분

출해 발사운용을 중지했다”며 “한-러 전문가간 회의를 개최해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후 발사일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사대 소화장치는 발사체나 주변에 화재가 발생시 이를 진압하기 위한 보조설비 장치이다. 이날 오후 1시52분에 소화용액 분사노즐 3개 모두가 오작동하면서 소화 용액이 분출됐다.

이주진 항우연 원장은 “소화장치 발사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나로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당분간 기상상태도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로호가 예비발사 기한인 19일을 넘겨 발사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나로우주센터=김필성기자 kps@

알림 제17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



전국 시·도대표 23개팀 출전

6월14일~21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호남 유일의 전국고교야구대회인 무등기에는 일교·진흥교·동성고 등 광주 3개팀, 서울 6개

팀, 경기 3개팀 및 부산 2개팀 등 총 23개팀이 출전에 고교야구 정상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박진감 넘치는 고교야구의 진수를 보여 줄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야구팬 여러분의 관심과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 주 최: 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 주 관: 광주광역시야구협회

출전팀 프로필 > 19면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계보청기